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일본 지자체 및 보험회사의 치매 대응전략

일시 : 2025년6월26일(목)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 특임준교수

김 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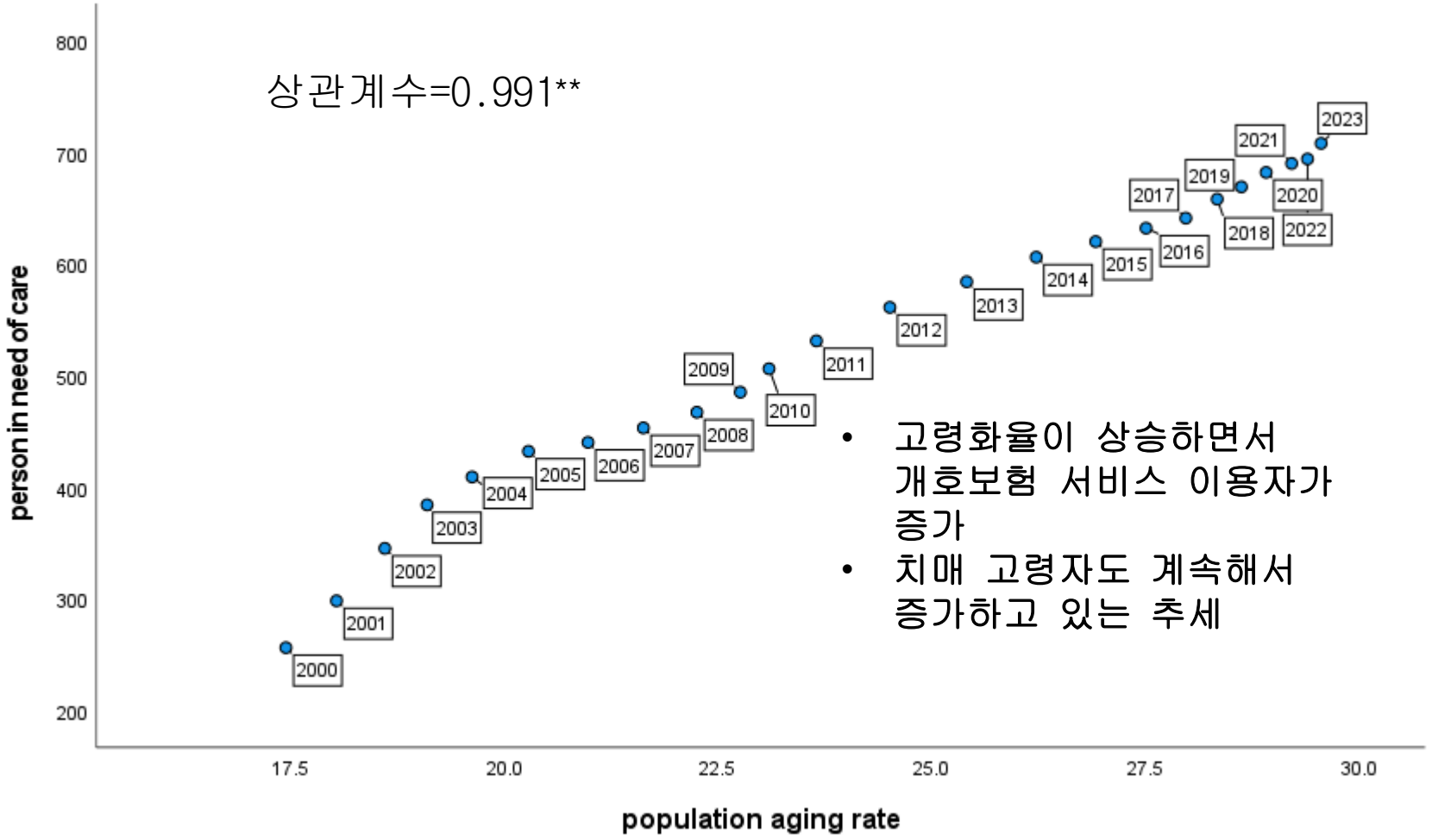
E-mail: kim@nli-research.co.jp
Hp: www.jusarang3502.com

구성

1. 일본 지자체의 치매대응전략
2. 일본 보험사의 개호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자 관련 대책 및 상품 현황
3.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과 치매머니에 대한 대책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일본 지자체의 치매 대응전략

고령화율과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수의 관계



- 고령화율이 상승하면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
- 치매 고령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치매 대책

①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치매 케어에 크게 기여.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로서 치매 그룹홈을 법정화.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 1위는 치매.

②일본 후생노동성은 2004년 12월 치매의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금일 발표는 한국식 표현 치매를 사용)

③2005년 '치매 서포터' 양성을 시작

④2014년 치매 서밋 일본 후계 행사 개최 → 총리로부터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한 지시.

치매 캐러밴 메이트와 치매 서포터



- 치매 캐러밴 메이트는 치매 서포터를 전국에서 양성하는 강사. 자원봉사자. 2025년 3월말 현재 187,747명.
- 치매 서포터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치매 서포터 양성강좌(약 90분) 를 수강하면 취득 가능.
- 치매 서포터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는 응원자라고 할 수 있음.
-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포터로서 활동.
- 2025년 3월말 현재 치매 서포터는 총 1621만 6천 명.

- 치매 서포터의 95%는 지역에서 양성
- 치매 서포터는 다음과 같이 구분

→치매 서포터: 치매 이해자

→실버 서포터: 고령자 복지 이해자,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점포나 기업은 실버 서포터점으로 등록

→골드 서포터: 고령자 복지 실천자, 치매 카페 운영, 치매예방교실의 운영 보조

팀 오렌지



- 팀 오렌지는 치매 고령자 등과 그 가족을 지역에서 서포트하는 활동.
- 팀 오렌지 멤버로 활동하려면 치매 지원자 단계별 교육 과정의 수강이 필요
- 일본에서 오렌지색은 치매 서포터의 심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치매 서포터가 중심이 되어 치매 고령자 등과 가족을 지원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구체적으로는 신변 보호, 말걸기, 대화상대, 외출지원, 치매 카페 등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 고령자 등의 사회참가를 촉진.


江東区
Ninchisho Supporter
私は
認知症サポーター
です
全国キャラバン・メイト連絡協議会
江東区観光キャラクター
コトミちゃん

치매 대책

⑤2015년 관계 12개 부처에서 신오렌지 플랜을 책정(후생노동성 이외의 부처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책을 시행).

⑥2016년에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초로기 치매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를 의무화 (초로기 치매 콜센터에는 2024년 3월말 시점에 119명의 지원 코디네이터가 등록되어 있음)

⑦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 신오렌지 플랜의 기본적 개념으로 개호보험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 치매에 관한 지식의 보급·계발, 심신의 특성에 따른 재활, 간병인 지원 등의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의사 존중 등

⑧치매 시책 추진 관계 각료회의가 2018년에 설치됨.

⑨2019년 치매 시책 추진 대강이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

※치매 시책 추진 대강에서 설정한 지역의 목표

- 치매 지역 지원 추진원의 선진적 활동 확산
- 모든 치매 지역 지원 추진원이 신규 및 현직자 교육을 이수
-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에서 제시한, 주치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배치 약국 수 70% 달성
- 치매 초기 집중 지원팀의 선진적 활동 사례집 작성
- 초기 집중 지원팀의 방문 실인원 전국 연간 40,000건
- 의료・개호서비스 연결 비율 65%
- 치매 질환 의료센터 설치 수 전국 500개소
- 시정촌별 치매 관련 상담 창구 게시 100%
- 시정촌별 치매 케어 패스 작성률 100%

※치매 시책 추진 대강에서 설정한 지역의 목표

- 의료 종사자 대상 치매 대응 능력 향상 교육 수강자 수 · 주치의 9만 명 · 치매 서포트 의사 1.6만 명 · 치과의사 4만 명 · 약사 6만 명 · 일반 병원 근무 의료 종사자 30만 명 · 간호사 등(병원 근무) 4만 명 · 간호사 등(진료소 · 방문 간호 스테이션 · 요양시설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검토
- 개호 인력 확보 목표치(2025년도 말까지 245만 명 확보)
- 개호 종사자 대상 치매 대응 능력 향상 교육 수강자 수(2020년도 말) · 치매 개호 지도자 양성교육 2,800명 · 치매 요양 실천 리더교육 5만 명 · 치매 요양 실무자교육 30만 명 · 치매 요양 기초교육 개호와 관련된 모두가 수강.

치매 대책

⑩2020년에 개호보험법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추가

⑪ 2023년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 기본법'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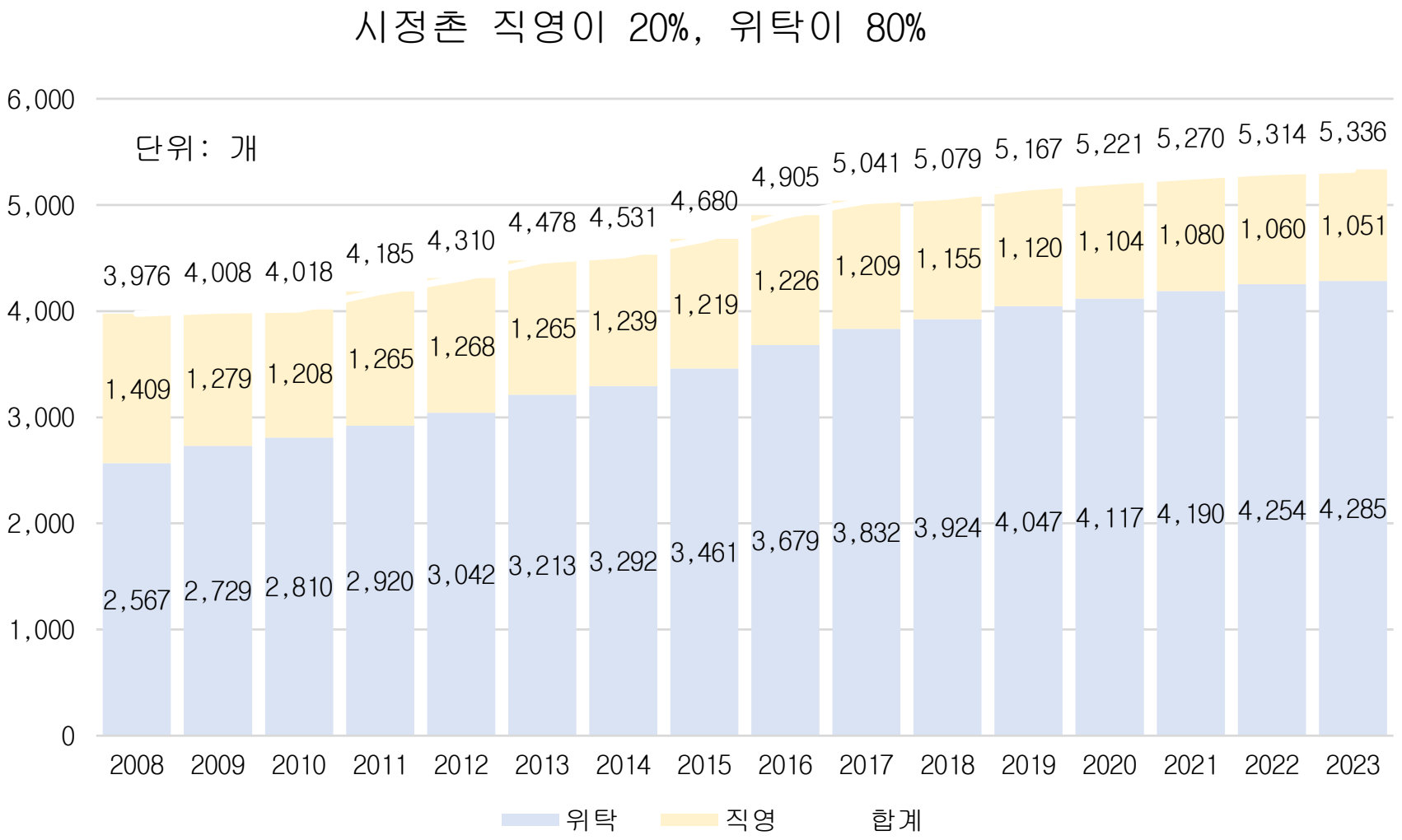
⑫ 2023년 '치매와 마주하는『행복한 고령사회』실현회의' 설치.

⑬ 2024년 '치매 시책 추진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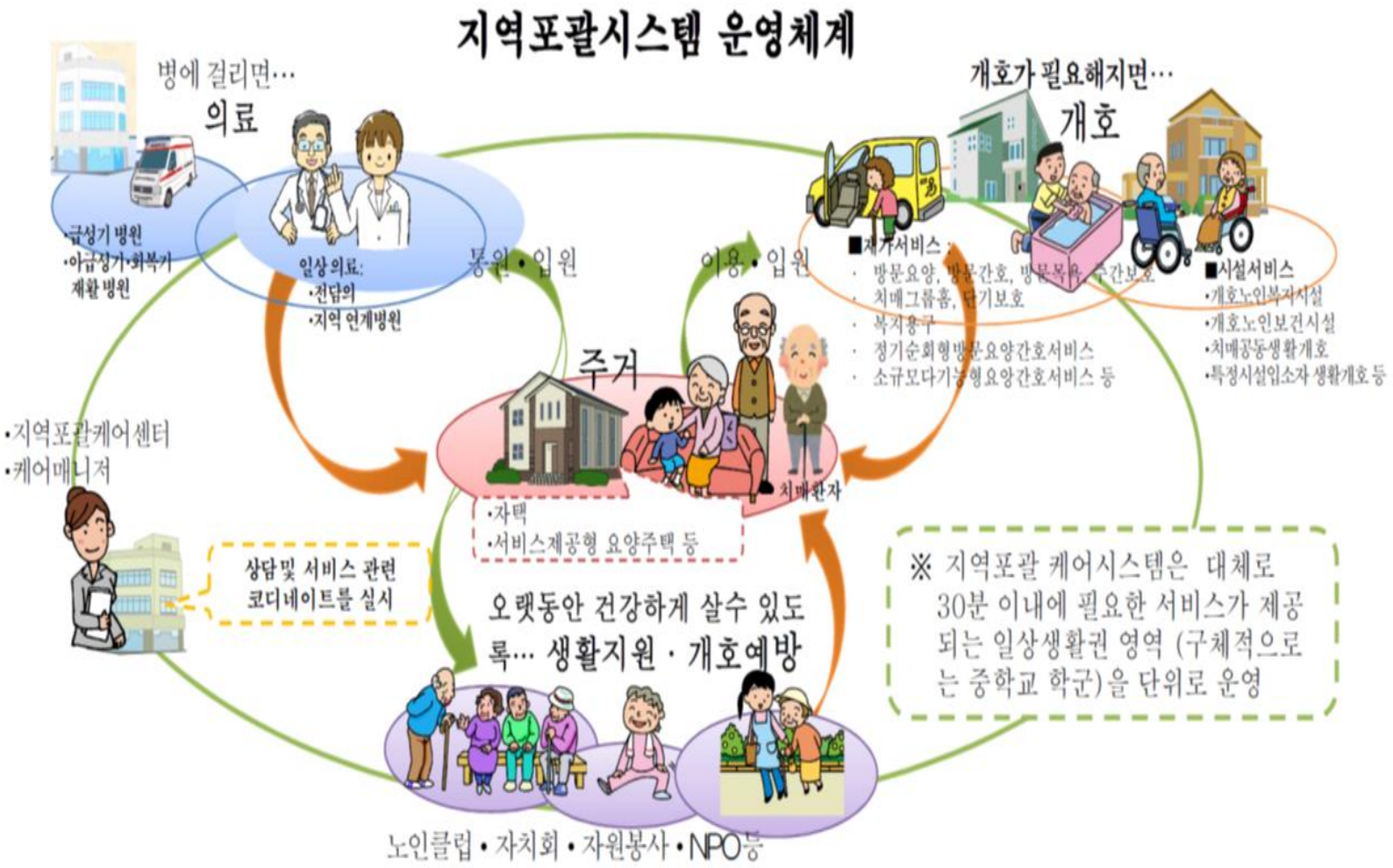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최근 치매 환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인지증 고령자 등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함.

-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치매 정책을 추진.
-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2005년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이 설치주체로 보건사,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 등을 배치해 주민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상황: 2023년 4월말 현재 전국에 5,431개소(브런치 등을 포함하면 7,397개소)

지역포괄지원센터 추이


시정촌 직영이 20%, 위탁이 80%
단위: 개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976 4,008 4,018 4,185 4,310 4,478 4,531 4,680 4,905 5,041 5,079 5,167 5,221 5,270 5,314 5,336
1,409 1,279 1,208 1,265 1,268 1,265 1,239 1,219 1,226 1,209 1,155 1,120 1,104 1,080 1,060 1,051
2,567 2,729 2,810 2,920 3,042 3,213 3,292 3,461 3,679 3,832 3,924 4,047 4,117 4,190 4,254 4,285
위탁
직영
합계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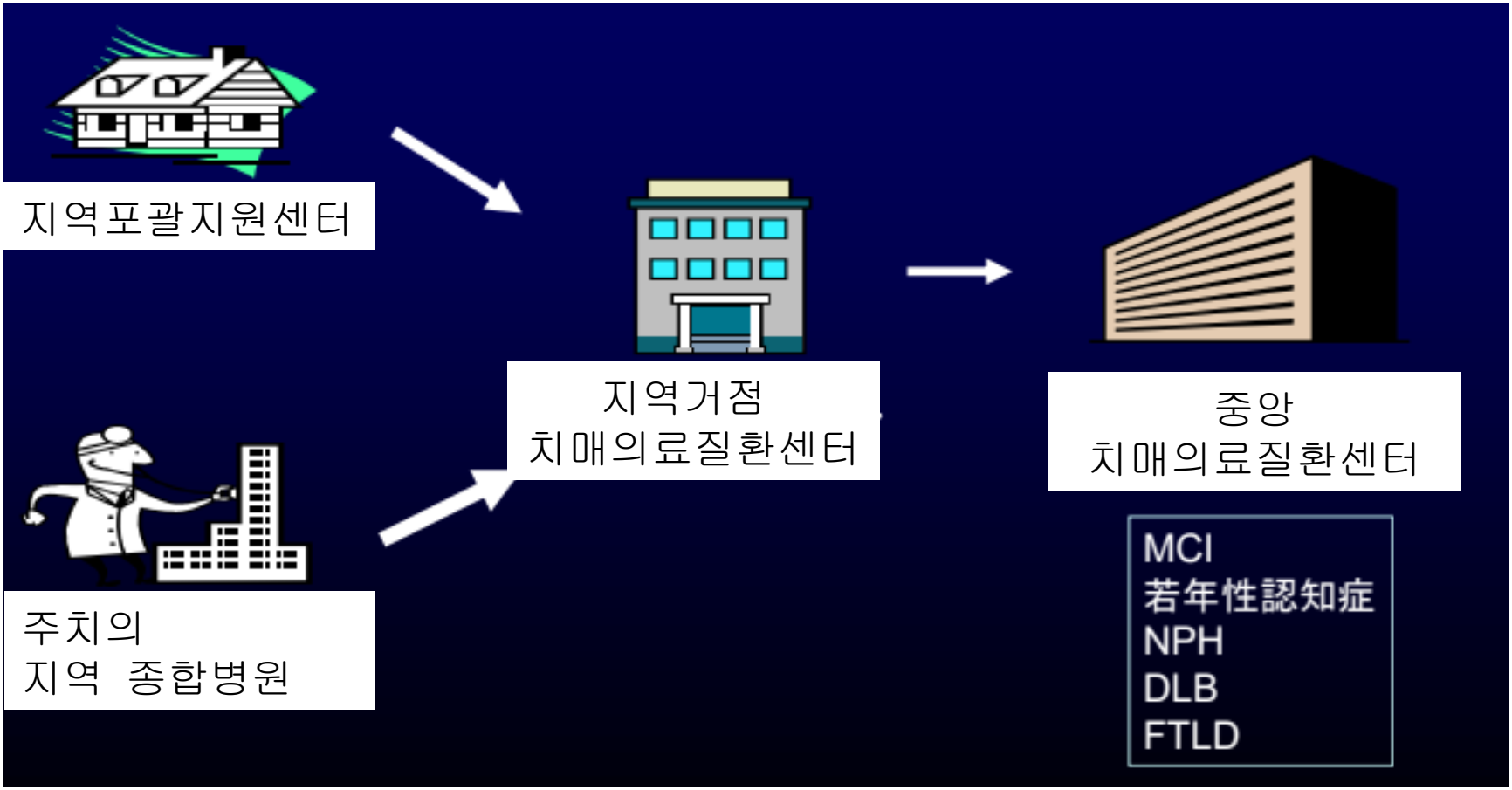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자 자조(自助), 공조(公助), 호조(互助), 공조(共助)의 4대 원칙을 강조.
- 즉 공적서비스만으로 고령자 등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자립적 생활 의지, 가족지원,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을 추진.
- 단 일본 정부가 지역포괄시스템을 실시한 목적 중 하나는 의료비 절감(환자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려보내 장기입원을 방지하는 방법 등으로)도 있음.

구마모토모델 : 치매의 의료연계

- 치매의 조기발견과 진료체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마모토대학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 설치된 중앙 치매의료질환센터와 지역에서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현내 11개 지역정신병원의 지역 거점형 센터 그리고 지역형 센터(치매카페, 치매 콜센터, 지역포괄센터, 지역주민) 를 연결하여 치매 안전망을 구축.
- 중앙 치매의료질환센터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현내 각 지역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11개 지역정신병원을 관리하고, 전문의료진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구마모토모델 : 조기진단 역할분담



고베시 2019년도부터 치매 대책 고베모델을 실시

고베모델의 주요내용

- 65세 이상 시민이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검진제도
- 치매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고베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제도
- 사고 시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설치
- 치매 환자가 실종된 경우 GPS로 수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단, 일부 본인부담 발생)
-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엔을 지급하는 급부금제도
- 약 3억 엔으로 예상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1인당시민세 균등할 초과 과세로 연간 400엔 추가 과세
- 치매 환자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이념과 인상된 시민세의 용도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 재원을 관리하는 기금 설치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배회고령자 등 SOS네트워크

- 치매로 인해 행방불명이 될 걱정이 있는 고령자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해, 등록번호를 부착.
- 등록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외, 등록자의 다양한 정보(치매 정도나 신체의 특징)는 등록번호에 연결되어,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등록번호만으로 조기 발견・보호에 연결할 수 있게 됨.
- 등록 정보는 야마토시, 지역포괄지원센터, 재택개호지원센터, 야마토 경찰서 등과 공유.
- 등록시에 희망하면, 수색시에 대중교통기관에 정보 제공도 실시.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배회고령자 개인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됨

  보상액 : 최대 3억엔

- 상해보험… 외출시의 급격하고 우연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불됨.

  보상액 : 사망・후유장애 최대 50만엔

-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18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비용이 지불됨.

  보상액:15만엔

치매 카페

-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이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
- 2023년 3월말 현재 전국 1,563개 시정촌(89.8%)에서 총 8,182개의 치매 카페를 운영.
- 월 1-2회 정도 빈도로 개최하는 경우가 대다수(1회 2시간 정도)
- 내용: 치매 고령자 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접할 수 있도록 설계. 가족 등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 지역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치매 카페: 야마사니현 츠루오카시

- 개시: 2016년
- 운영단체: 츠루오카시
- 개최장소: 츠루오카시 종합보건복지센터 3층
- 개최일시: 매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목요일 10시~11시30분
- 비용: 참가비 100엔
- 참가자수 : 매회 10~30명(지역주민 5명, 치매 고령자 5~10명, 개호담당자 5~10명, 전문직 1~4명)
- 프로그램: 카페 타임 10분, 미니강의 30분, 카페타임&정보전달&질문 타임 50분

치매 카페: 야마사니현 츠루오카시

- 치매 모더레이터 연수를 수료한 운영 스태프와 치매 서포터 양성강좌의 강사역을 담당하는 캐러밴 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츠루오카시와 협력해서 개최.
- 운영에 있어서 주의하고 있는 점: 단지 카페의 역할만 하지 않고 체조와 노래 등에 특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음.
- 참가자가 반드시 오늘은 배운 게 많다, 오늘부터 해보자, 치매에 걸려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등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전문직이 참가하여 치매 당사자와 가족 개호자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항상 주위에 신경을 쓰고 있음.

2. 일본 보험사의 개호보험, 치매 보험 등 고령자 관련 대책 및 상품 현황

보험상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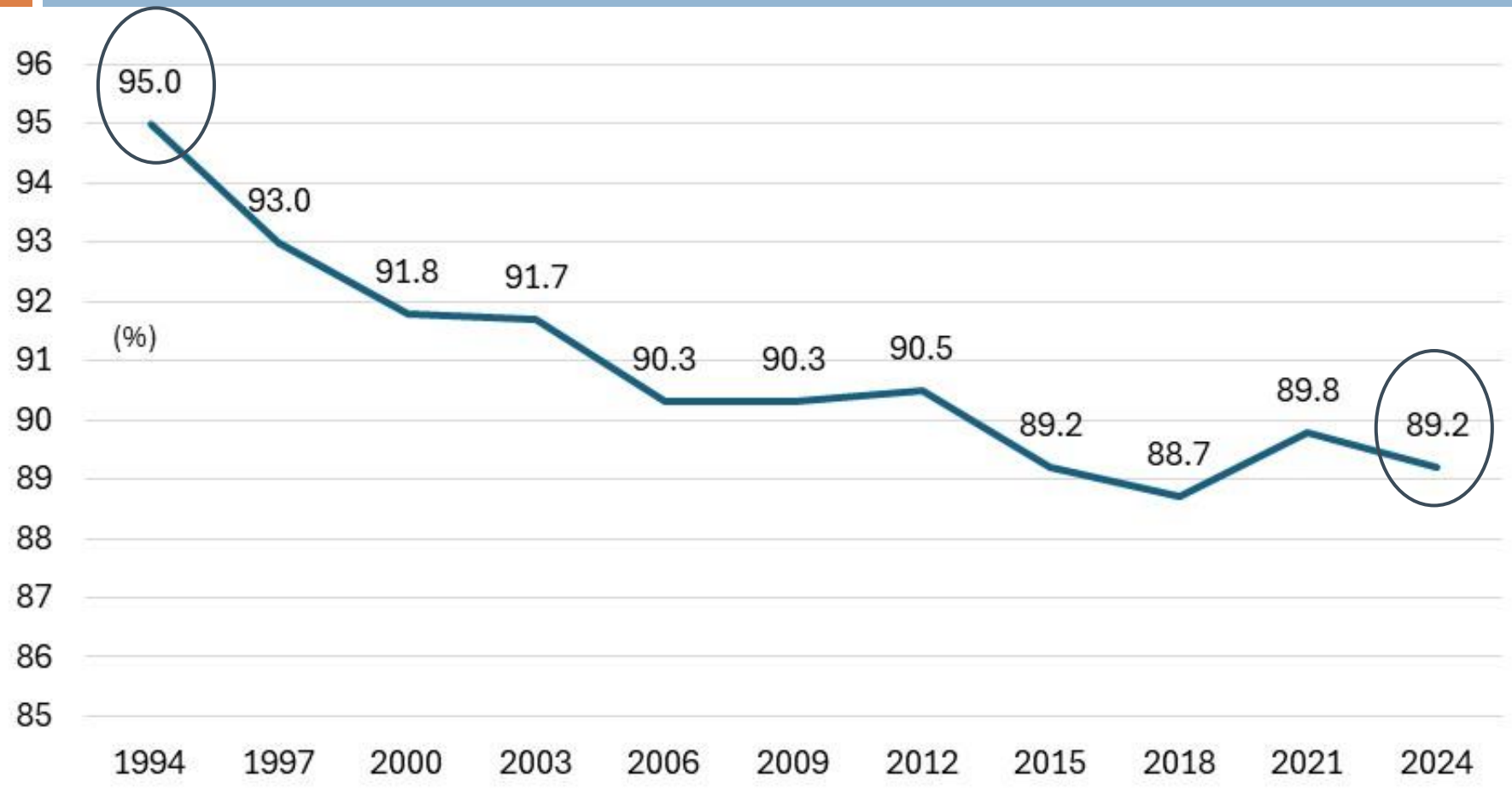
- 이전에는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 관련 상품이 주류.
- 평균수명이 상승, 장수와 실업에 대비한 노후보장 및 소득보상, 고령에 동반에 증가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의료보장, 치매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대비한 개호보장 등 본인을 위한 생존보장 관련 상품이 인기.
- 공적연금의 재원문제 등을 염려해 개인연금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
- 과거의 특약을 추가한 복잡한 보험에서 특약 없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심플한 보험상품이 인기.

생명보험 가입상황

		가입률	개인연금보험	의료보험・특약	암보험・특약	개호보험・특약	평균가입건수(건)	평균가입보험금액(만 엔)	평균질병입원급부금일액(천 엔)	평균연간보험료(만 엔)	연간수입대비
2021년	가구 전체	89.8	24.3	93.6	66.7	16.7	3.9	2.027	-	37.1	6.7
	가구주	84.9	-	88.7	60.1	13.6	1.8	1.386	9.8	-	-
	배우자	80.3	-	65.8	43.6	8.5	1.6	692	8.1	-	-
	아동	46.7	-	-	-	-	1.2	-	-	-	-
2009년	가구 전체	90.3	22.8	92.8	59.5	13.7	4.2	2.978	-	45.4	8.7
	가구주	86.7	-	86.6	53.3	11.1	1.8	1.768	10.4	-	-
	배우자	80.0	-	69.0	36.7	6.2	1.7	892	8.5	-	-
	아동	55.0	-	-	-	-	1.3	-	-	-	-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추이



2024（令和6）年度「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2025年1月発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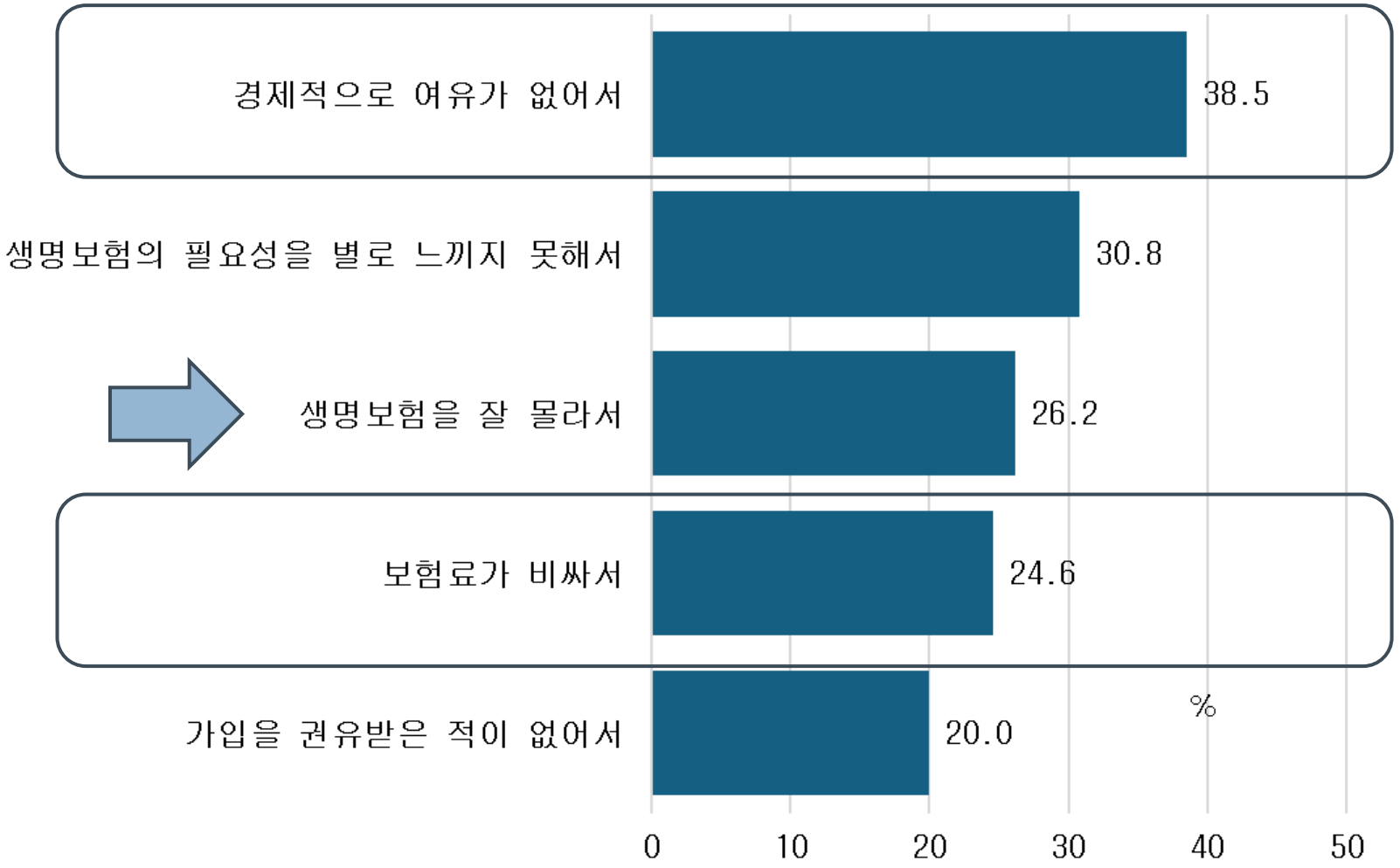
생명보험가입률(연령대별)

(%)

	2012（平成24）年	2015（平成27）年	2018（平成30）年	2021（令和３）年	2024（令和６）年
全　　体	90.5	89.2	88.7	89.8	89.2
29歳以下	76.6	77.5	79.2	70.2	69.5
30～34歳	89.2	86.7	86.7	90.7	80.3
35～39歳	93.4	93.3	88.7	89.4	88.3
40～44歳	92.2	91.4	92.4	93.2	86.8
45～49歳	95.1	95.2	93.3	94.0	92.7
50～54歳	95.4	92.8	93.5	93.0	93.4
55～59歳	96.3	96.1	94.1	94.8	94.0
60～64歳	91.9	91.2	92.1	92.4	91.4
65～69歳	92.3	91.2	89.5	93.8	95.2
70～74歳	87.0	89.0	88.4	88.2	89.7
75～79歳	84.8	79.9	82.3	85.0	89.0
80～84歳	67.8	71.1	76.9	80.2	77.6
85～89歳	64.3	68.4	69.5	67.5	63.3
90歳以上	55.6	52.2	71.4	52.2	62.5

2024（令和6）年度「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2025年1月発行）

생명보험 미가입 이유(20대 여성)



치매 대책에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조

- 일본 정부는 2019년「치매 시책 추진 대강」등을 발표해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정책 연계 측면에서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상호 역할을 보완하며 대응하는 방식을 추진.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조.
-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후견제도지원신탁, 가족신탁제도를 실시.
- 보험회사는 치매 서포터 양성, 민간 개호보험, 치매 관련 보험 등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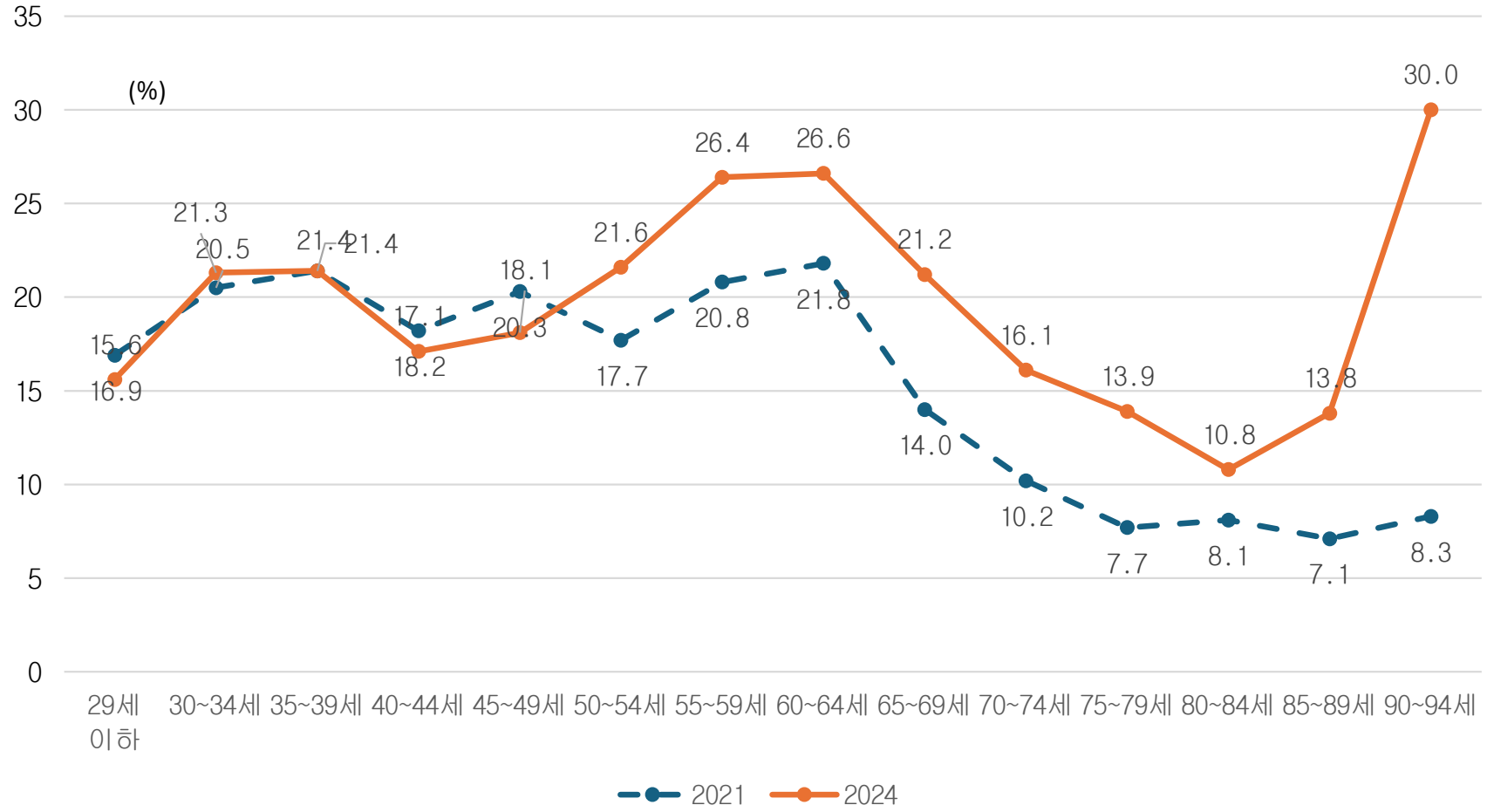
개호보험, 개호특약 가입률(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단위:%

	가구	가구주	배우자
2024년	20.1	16.8	11.0
2021년	16.7	13.6	8.5
2018년	14.1	10.5	7.8
2015년	15.3	11.8	7.9
2012년	14.2	10.8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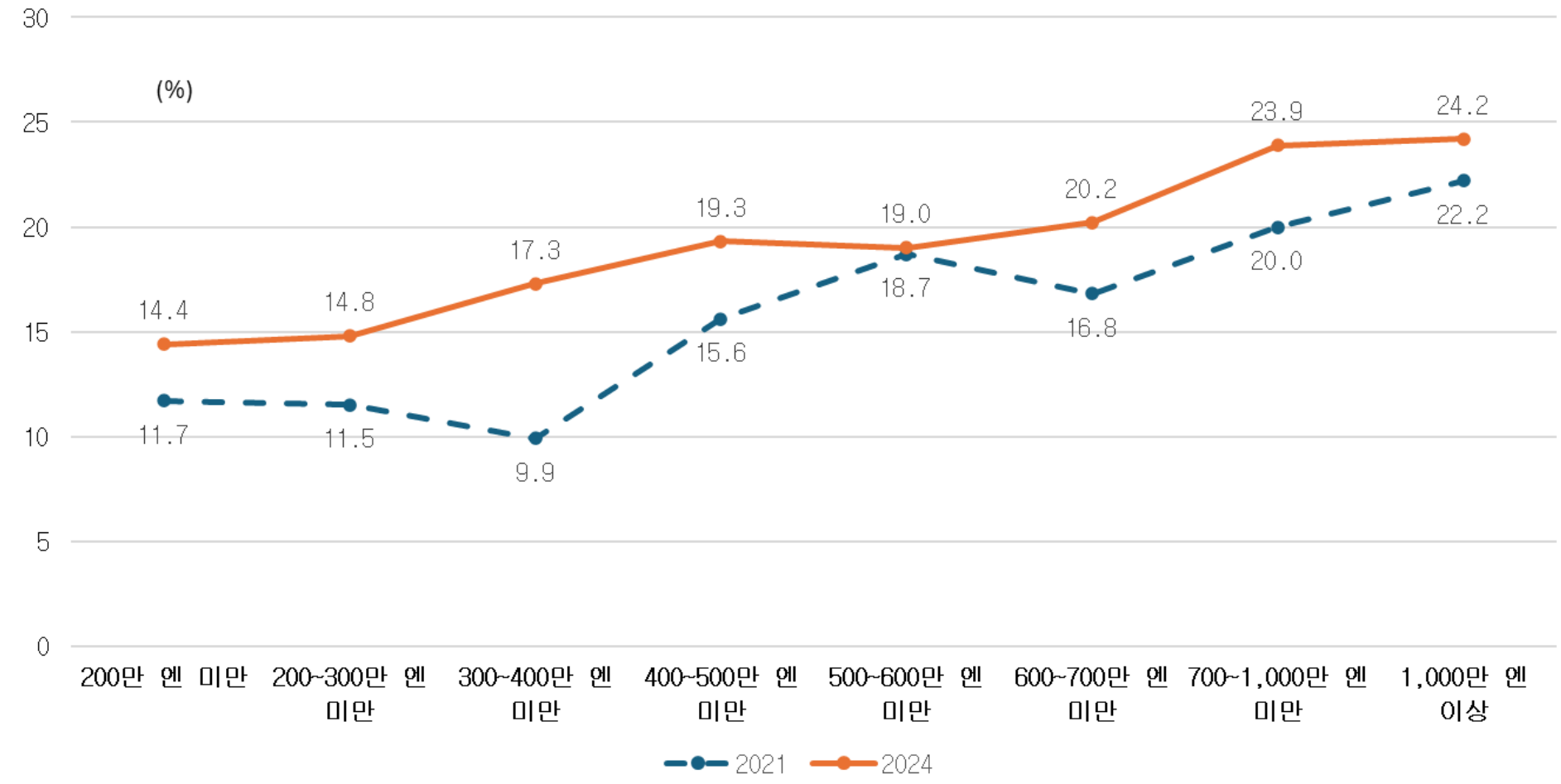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개호보험, 개호특약 가입률(가구주 연령대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개호보험, 개호특약 가입률(가구연간수입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개호 관련 비용

- 개호 평균초기비용: 74만 엔
- 매월 평균자기부담액:8.3만 엔
- 개호평균기간:54.5개월
- **개호와 관련된 평균 본인부담액 총액**

남성: 74만 엔 (초기 비용) + 8.3만 엔 × 8.37년(평균수명-건강수명) × 12개월 = 약 908만 엔

여성: 74만 엔 (초기 비용) + 8.3만 엔 × 11.71년 (평균수명-건강수명) × 12개월 = 약 1,240만 엔

출처:公益財団法人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1 (令和3) 年度 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

민간 개호보험

상품명	보험회사	형태	연금, 일시금 지불조건	보험료
안심 개호	아사히생명	순수보장형	연금식:요개호1이상 일시금:요개호3이상	6090-13908엔
아플락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개호보험	아플락엔	순수보장형	연금식:요개호3이상 일시금:요개호1이상	2480-5690엔
건강 지킴이	SOMPO 히마와리생명	순수보장형	요개호1이상	5230-8390엔
미국달러기준 개호보험 포함 종신보험	지브롤터생명	저축형	요개호2이상	272달러-458달러
안심연금개호R	도쿄카이죠 닛토	반환형(지불한 보험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	요개호2이상	6480-18840엔

이온 충실개호보험

- 보험료: 40세 남성 월 390엔, 여성 월 370엔
- 요개호 2 또는 요개호상태가 될 경우 일시금으로 300만 엔 지급
- 요개호 3이 될 경우 매년 100만엔씩 10년간 지급

연령계급별 보험료 월액

연령	남성	여성
40~44세	390엔	370엔
45~49세	470엔	450엔
50~54세	640엔	610엔
55~59세	920엔	890엔
60~64세	1,970엔	1,900엔
65~69세	4,440엔	4,900엔
70~74세	9,120엔	10,940엔
75~79세	20,950엔	25,38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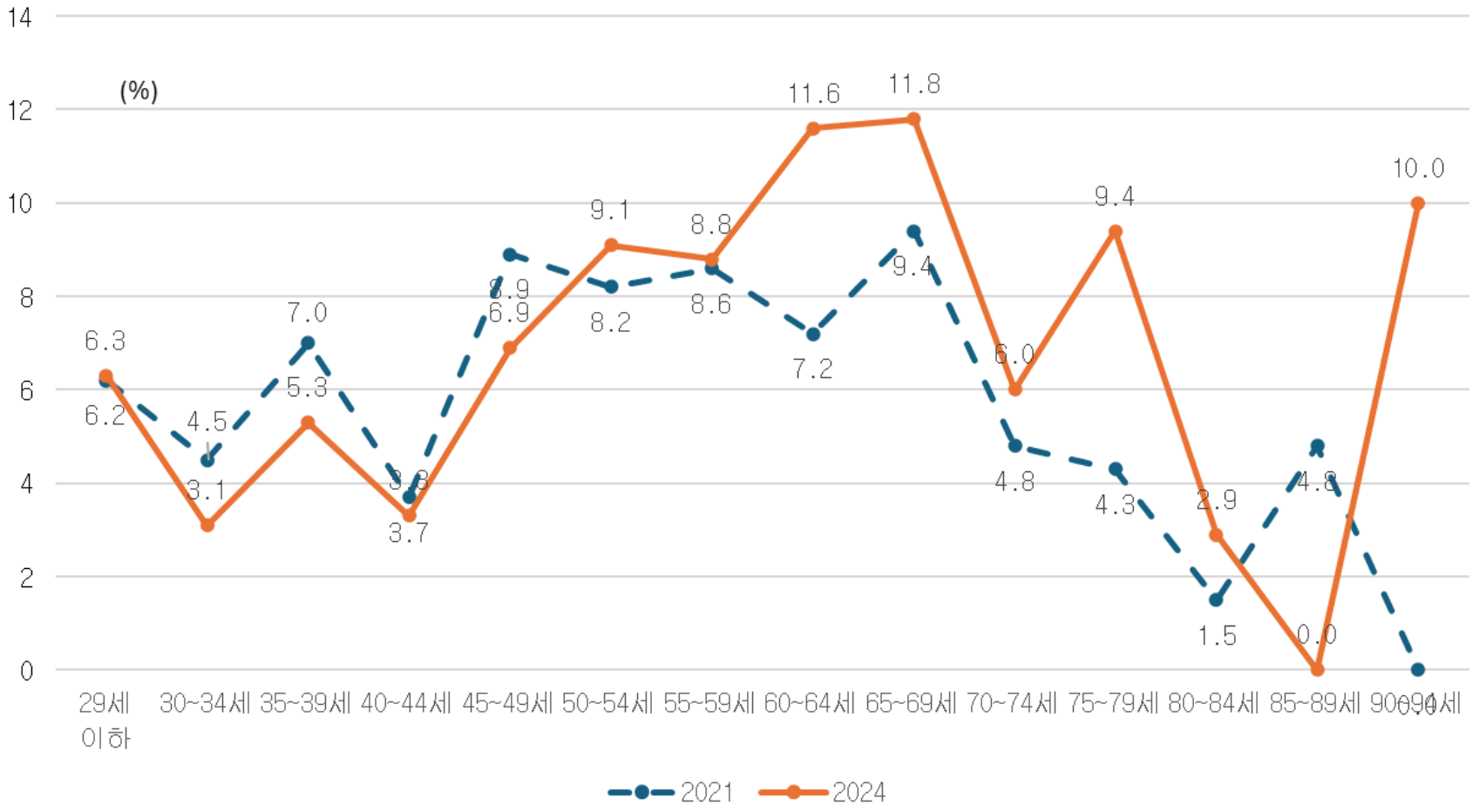
치매보험, 치매특약 가입률(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단위 : %

	가구	가구주	배우자
2024년	7.6	6.0	4.0
2021년	6.6	5.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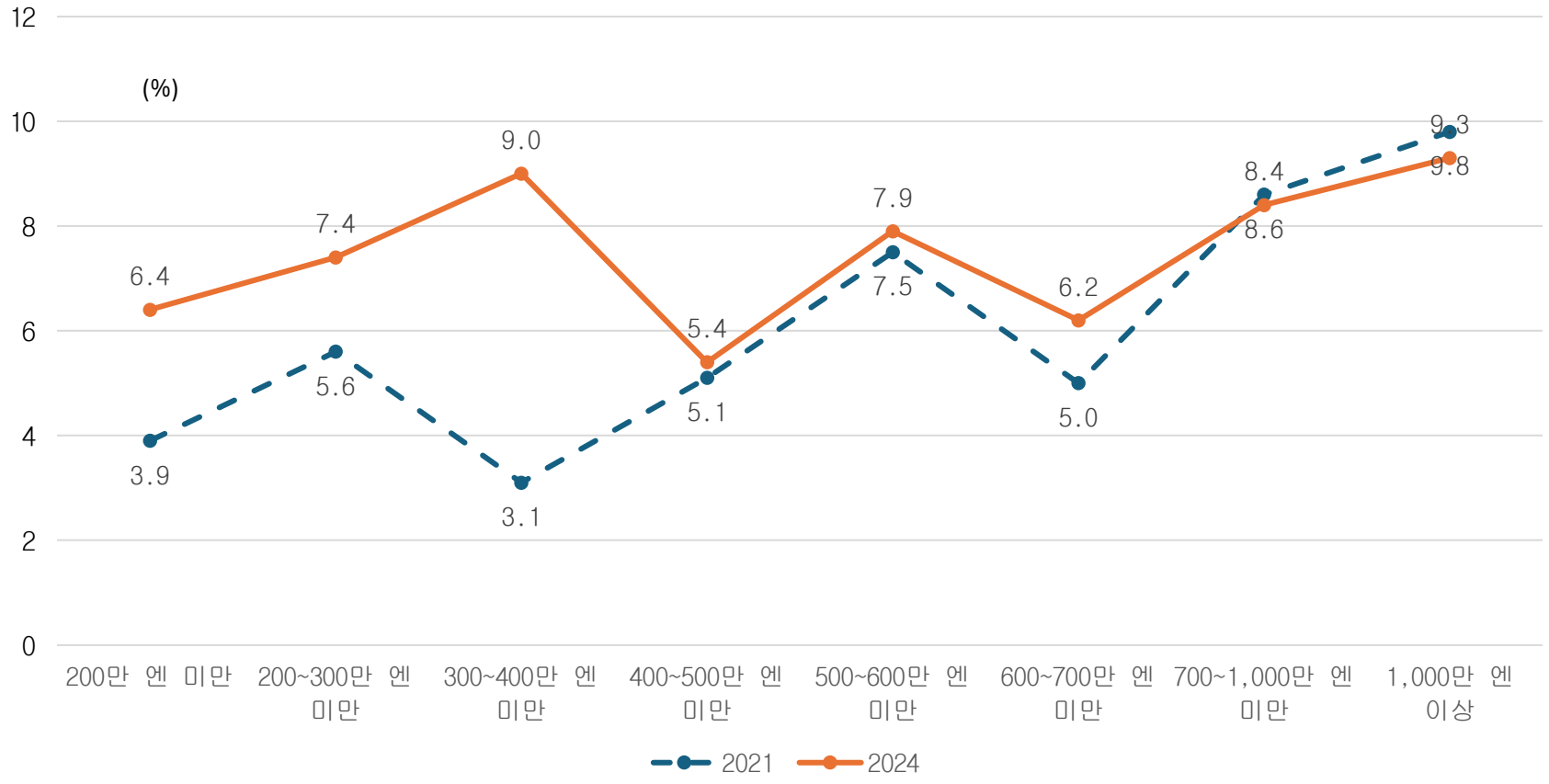
출처 :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치매보험, 치매특약 가입률(가구주 연령대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치매보험, 치매특약 가입률(가구연간수입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기준)



출처: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4)「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를 이용해 작성

노노「老老」개호 및 인인「認認」개호가 증가

-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개호가 필요한 기간도 장기화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게 현실
- 노노개호 및 인인개호가 증가
- 노노개호란 65세 이상 고령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부모나 배우자, 형제)가 돌보는 상태
- 인인개호란 치매에 걸린 고령자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를 돌보는 상태

아사히생명 인생100년 시대의 치매보험

- 50세 남성 월보험료 2,013엔
- 치매 진단 일시금 30만 엔(1회만 지급)
- 최대 500만 엔 일시금 지급
- 치매 요양 일시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당일을 포함해 2년이 경과한 후, 특정 치매에 해당하며 공적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 등급 1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고, 일시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소멸됨.

닛세이 미라이노가타치 치매보장보험

- 2020년 4월 2일 닛세이 미라이노가타치 치매보장보험 치매 서포트 플러스를 발매
- 치매로 진단되었을 경우 치매 진단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MCI)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치매 진단 보험금의 10%를 일시금으로 지급
- 보험금에 추가적으로 가입에서 보험금 지급까지를 서포트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저하하면 보험금을 본인이 청구하는 것과 재산 관리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를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제도의 활용 및 GranAge Star 임의 후견 서비스를 안내.
- 치매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불할 사유에 해당할 때에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무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정대리청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연락.

GranAge Star　임의 후견 서비스(유상)

- 임의 후견제도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이나 재산 관리 등을 대신 수행하는 제도.
-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자녀가 먼 곳에 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주변에 임의후견인을 부탁할 수 없는 자에에 GranAge Star 임의 후견 서비스를 안내.**
- 치매 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법인(일반사단법인 시니어 종합서포트센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보험금의 일부를 임의 후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인지 기능 체크 ONSEI

- 질문에 응답하는 것만으로 당일의 인지 기능 상태를 알고리즘을 이용해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치매 시책추진 대강(2019년 6월)

- 지향하는 사회: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이후에도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

각 단계에 따라 대책을 실시

인지기능 저하 증세가 없는 자

치매 발병을 늦추는 대책

인지기능 저하 증세가 있는 자

치매 발병을 늦추는 대책

치매에 걸린 자

치매에 걸린 본인의 시점에서 치매 배리어 프리의 추진

보장내용

	지불사유	지불액	지불한도	수령인
인지증 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다음 ① 및 ②를 함께 충족했을 때 ①책임 개시 이후의 상해 또는 질별이 원인으로 소정의 인지증에 해당할 경우 ②인지 기능 검사 및 화상 검사에 의해 ①에 정해진 인지증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인지증 진단 보험금액	1회	피보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다음 ① 및 ②를 함께 충족했을 때 ①책임 개시 이후의 상해 또는 질별이 원인으로 소정의 경도 인지증에 해당할 경우 ②인지 기능 검사 및 화상 검사에 의해 ①에 정해진 경도 인지증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인지증 진단 보험금액의 10%	1회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인지증 진단 보험금액의 10%	1회	사망보험금 수령인

보험금액 사례

- 사례:치매 진단 보험금액 500만 엔 , 보험료 납부 방법:월납,계좌이체, 보험료 납부 면제특약:미포함



인지인증보험 보험료

단위:엔

	보험기간 10년		보험기간 종신	
계약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40세	1,010	890	4,729	5,685
50세	1,630	1,475	7,135	8,685
60세	6,215	5,670	11,930	14,550
70세	15,030	18,045	20,545	26,170

3.고령자의 경제적 상황과 치매 머니에 대한 대책

- 고령자부부가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월37.9만 엔

公益財団法人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2年度生活保障に関する調査」※「老後の最低日常生活費」と「老後のゆとりのための上乗せ額」の合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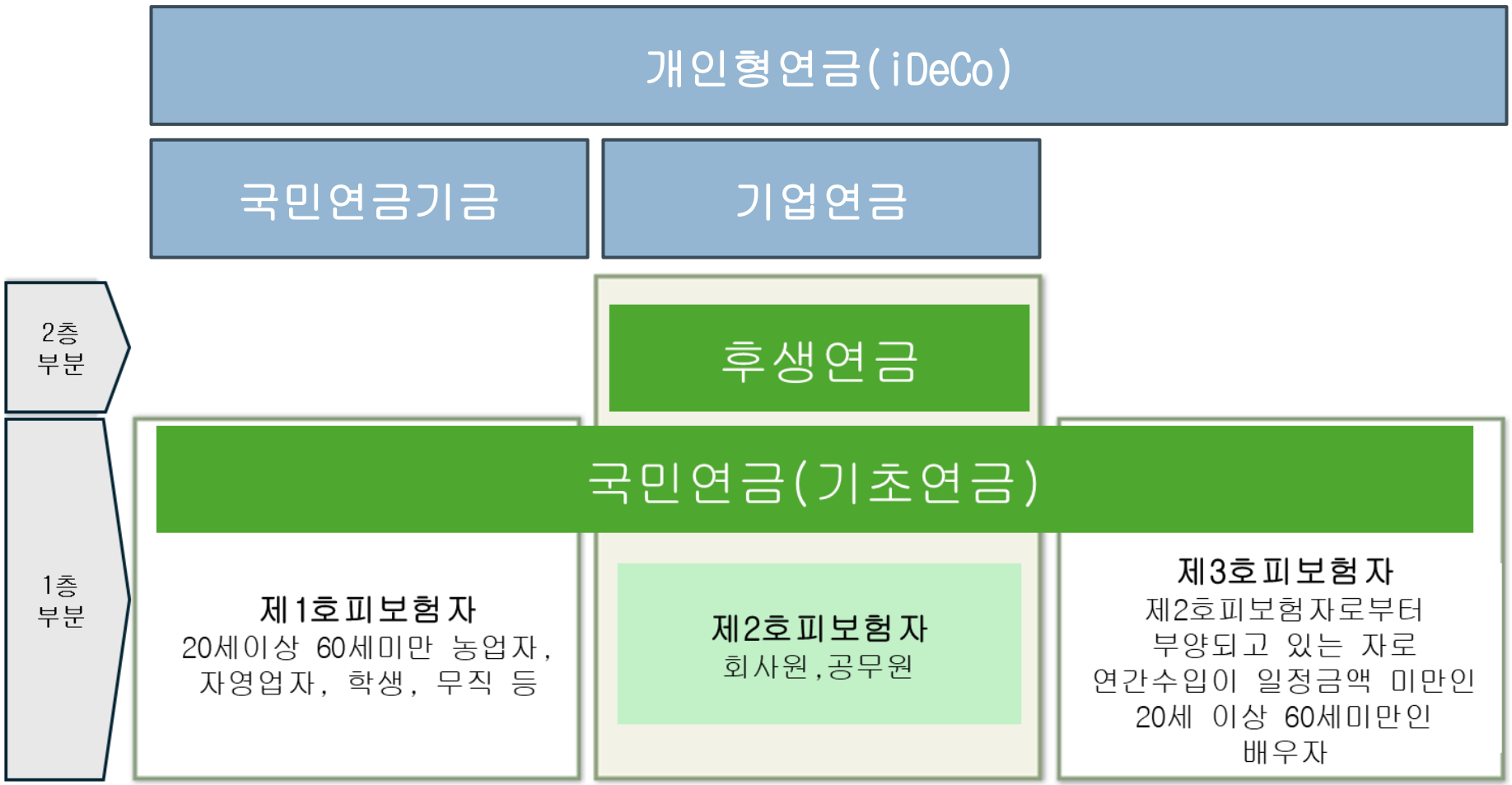
- 고령자부부의 평균 실수입 약 24.6만 엔

総務省「家計調査年報（家計収支編）2022年」※高齢夫婦無職世帯(夫65歳以上、妻60歳以上の夫婦のみの無職世帯)1ヵ月あたりの平均的な収支。

월평균 급여액은 기초연금 57,801엔, 후생연금 147,360엔

- 부족한 금액 월 13.3만 엔
- 생애 약 3,032만 엔 부족(약 13.3만 엔 ×12개월 ×19년)

일본의 연금제도


개인형연금(iDeCo)
국민연금기금
기업연금
2층 부분
후생연금
1층 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1호피보험자
20세이상 60세미만 농업자, 자영업자, 학생, 무직 등
제2호피보험자
회사원,공무원
제3호피보험자
제2호피보험자로부터 부양되고 있는 자로 연간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 20세 이상 60세미만인 배우자

국민연금제도

- 보험자: 정부
- 보험료: 매월 17,510엔(2025년도,연간 21만120엔)
- 지급요건: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일 것.
- 지급개시연령: 원칙적으로 65세(단, 60세부터 감액된 연금의 조기지급 및 66세부터 70세까지 원하는 연령에서 증액된 연금의 조기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의 변천 및 계산방법은 다음 주소에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hokenryo/hensen.html
-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hokenryo/hokenryogaku.html

후생연금제도

- 보험자: 정부
- 보험료: 임금에 비례(18.3%, 노사절반)
- 지급요건: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일 것.
- 지급개시연령: 원칙적으로 65세(단, 60세부터 감액된 연금의 조기 지급 및 66세부터 75세까지 원하는 연령에서 증액된 연금의 조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等級	月額賃金	標準報酬月額	保険料	本人負担分
			18.3%	9.15%
1	93,000円未満	88,000円	16,104円	(8,052円)
2	93,000円以上 101,000円未満	98,000円	17,934円	(8,967円)
20	310,000円以上 330,000円未満	320,000円	58,560円	(29,280円)
21	330,000円以上 350,000円未満	340,000円	62,220円	(31,110円)
22	350,000円以上 370,000円未満	360,000円	65,880円	(32,940円)
23	370,000円以上 395,000円未満	380,000円	69,540円	(34,770円)
24	395,000円以上 425,000円未満	410,000円	75,030円	(37,515円)
31	605,000円以上 635,000円未満	620,000円	113,460円	(56,730円)
32	635,000円以上	650,000円	118,950円	(59,475円)

공적연금제도와 라이프코스(2025년도 기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조기연금

-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보다 감액됨(월 단위로 1개월당 0.4%, 감액률은 최대 24%)
- 조기지급을 신청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음.평생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됨.

조기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10.4% 후생연금 0.9%

연기연금

-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보다 늦출 수 있음(75세까지).
-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에 비해 증가 (월 단위로 1개월당 0.7%, 증액율은 최대 84%)

연기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2.2% 후생연금 1.6%

소득대체율은 61.2%

남편 65세 아내 60세
근속 40년 전업주부



=

기초연금 후생연금
13.4만 엔 9.2만 엔



計22.6万円

부부 2명의
기초연금과 남편의
후생연금

/

평균수입



37.0万円

현역 남성의 평균
가처분수입

소득대체율

61.2%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추이



출처:일본은행 2024년 12월 자금순환통계(속보) 등

가족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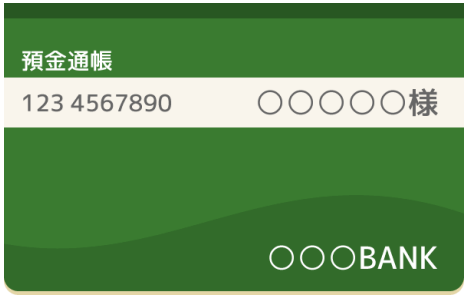
- 가족신탁은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현금·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생명보험 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유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권리를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2007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한 자산 관리 방식.
- 가족신탁은 증여세 및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에 비해 유연하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는 매년 가정재판소에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부담과 제약이 많아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생전 증여, 상속세 대책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가족신탁의 장점

- 위탁자의 판단능력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처분이 가능
- 잉여자금에 의한 투자와 부동산 구입이 가능
- 신탁계약 범위내에서 금융상품의 구입 및 투자 등이 가능
- 유언대용형 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으로 가족신탁 계약이 종료되며 ,신탁 재산은 지정된 귀속처(상속인 · 제3자)에 승계됨
- 가족신탁 계약 내에서 재산의 상속인이나 그 내용을 적절히 정해두면, 유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시의 부담이 경감
- 가족 신탁을 통해 자사 주식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치매에 대비한 사업 승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금전을 가족신탁하는 경우

전용 계좌에서 관리 및 기록



신탁계약

부

자

수익자의 생활비 등을 인출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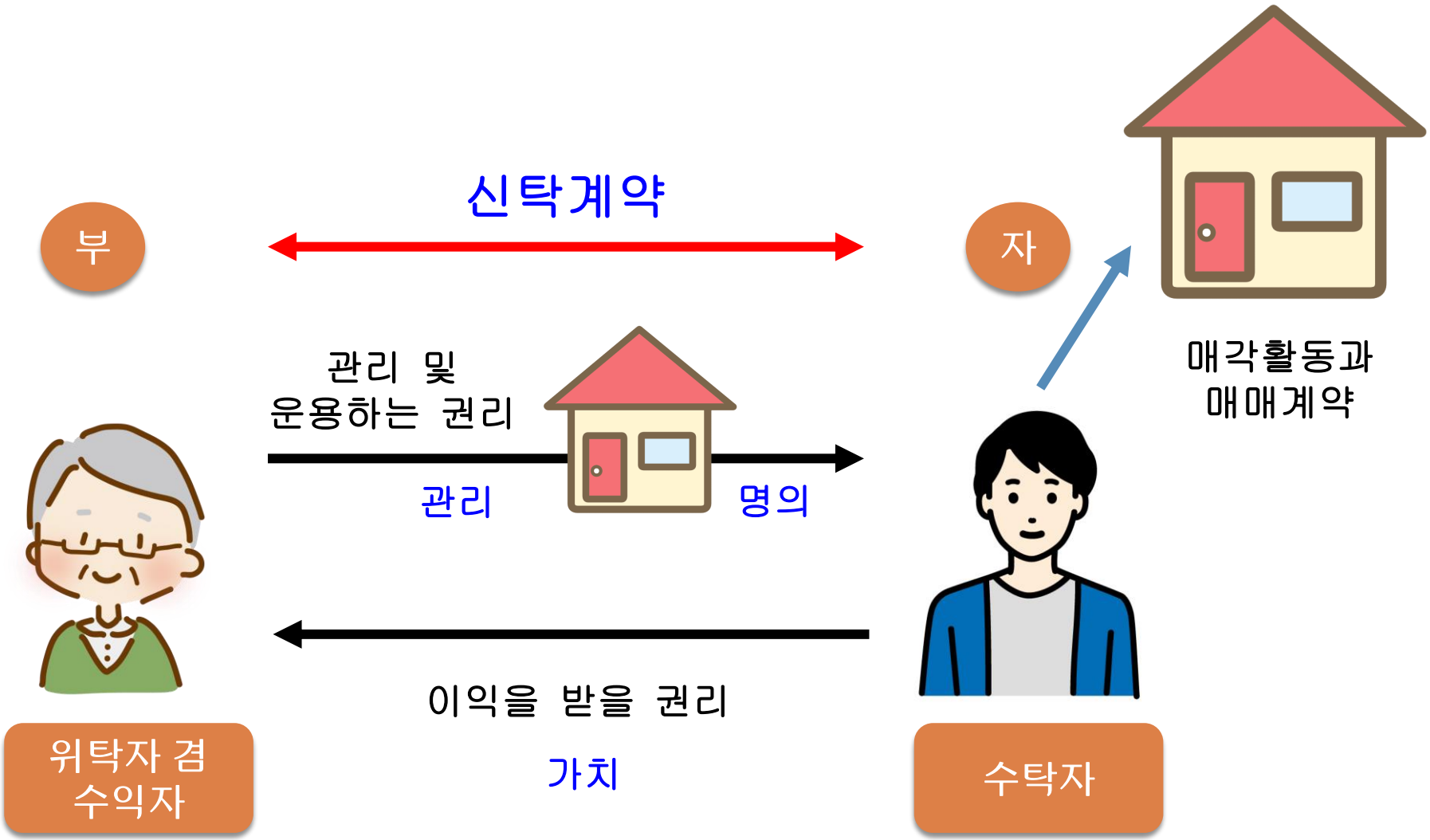


생활, 의료, 개호비 등 필요한 비용을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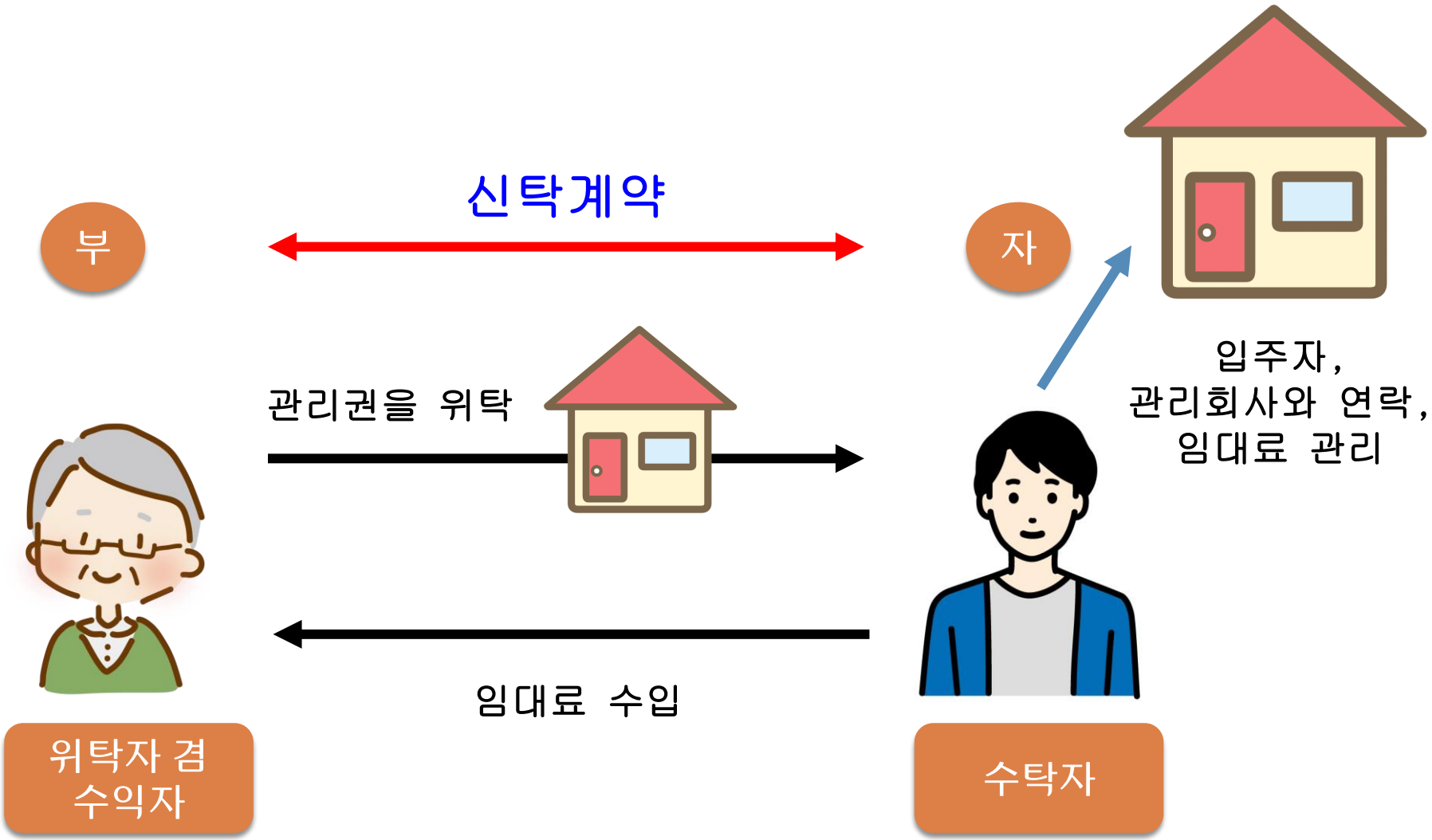
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매각 예정 부동산을 가족신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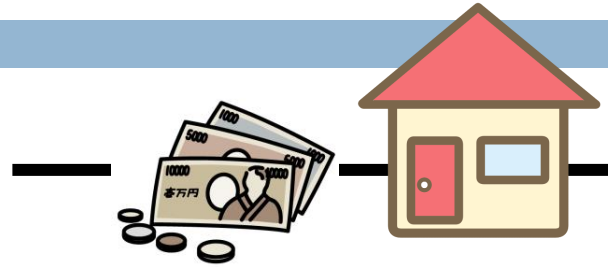


수익 부동산을 가족신탁하는 경우



유언 기능

부



자

신탁계약



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신탁계약 → 유언 기능

사망

신탁종료

신탁재산
잔여재산으로 귀속 권리자에

자



자



메이지야스다생명

- 2023년 11월 20일부터 가족신탁조성 서포트서비스의 제공을 개시.
- 가족 신탁은 판단 능력이 있는 동안 중요한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에도 본인의 희망과 가족의 필요에 맞춘 유연한 재산 관리 및 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가족 신탁 조성 지원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맡겨 치매 등 원인에 따른 자산 동결에 대비하며, 만일의 경우 원활한 재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신탁 구성 절차 및 구성 후의 사후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
- 가족신탁 컨설팅 회사인 패미트라와 제휴.
- 보험 가입자들에게 초기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우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족신탁 가입을 유도.

톤틴(tontine) 연금보험

- 연금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 시점까지 사망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액을 더 많이 주는 상품.
- 보험료가 비싸 80대 후반 90대 중반까지 살지 않으면 본전을 찾기 어려움.
- 톤틴성: 사망한 자의 지분이 살아있는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급부가 제공되는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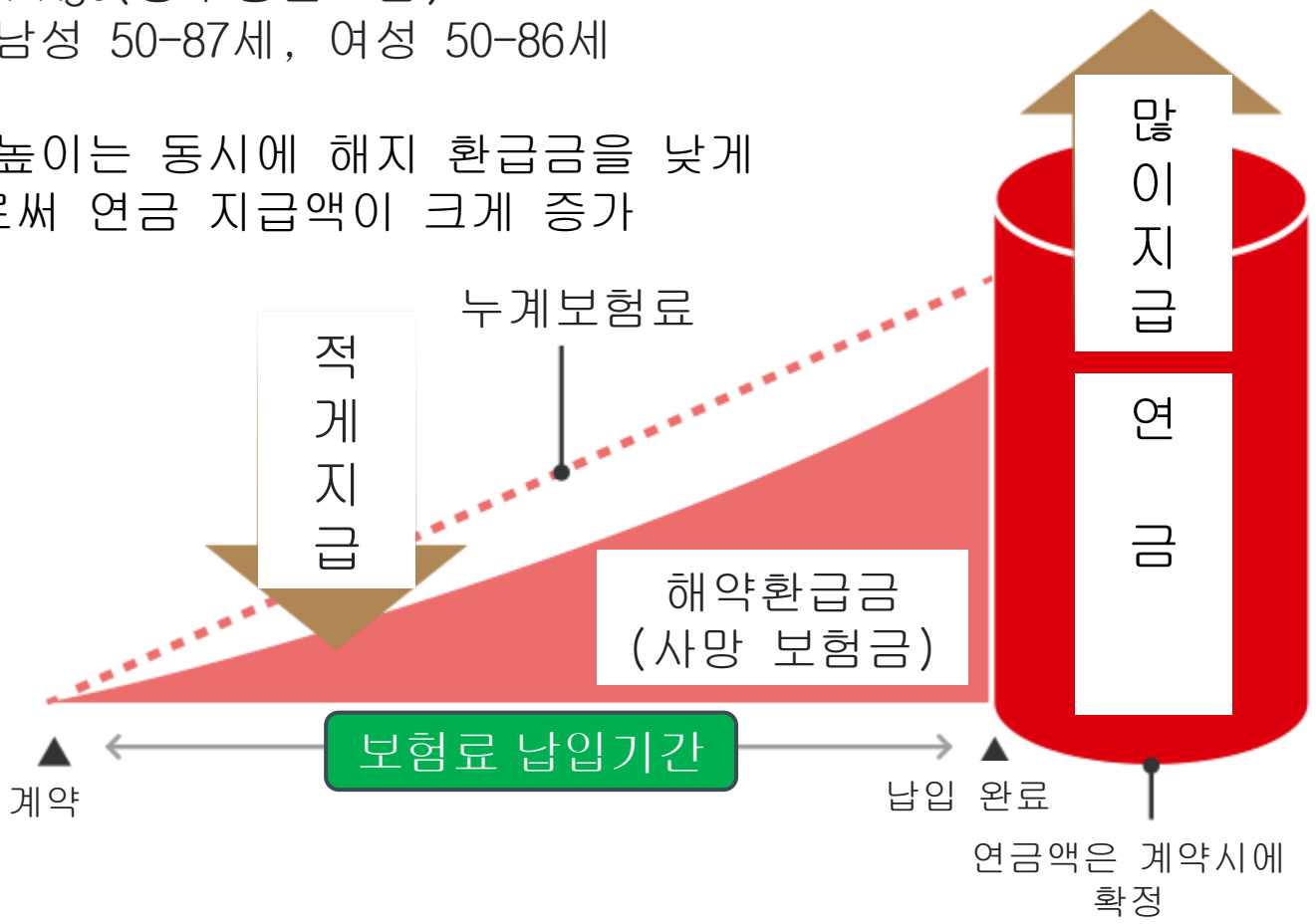
대표적인 톤틴연금

구분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간보생명	타이요생명
상품명	그랑 에이지	장수 이야기	장수지원보험 장수의 행복	100세 시대 연금
판매시기	2016.4	2017.3	2017.10	2018.9
가입연령	50-87세	50-80세	50-70세	50-85세
개시연령	60-90세	60-90세	60-80세	60-90세
연금보증	5년간	10년간	20년간	10년간
손익분기점	90세	89세	93세	88세
100세 생존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률	152.5%	163.0%	133.6%	171.0%

니혼생명 Gran Age:2016년부터 판매

닛세이Gran Age(장수생존보험)
가입대상 남성 50-87세, 여성 50-86세

톤틴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지 환급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연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



https://www.nissay.co.jp/kojin/shohin/seiho/choju/

Gran Age의 보험료(예,2025년 1월2일 기준)

연금액 60만 엔의 경우

보험료 납입 만료: 80세/월납, 계좌이체, 계약시에 10년 확정연금을 선택한 경우

단위:엔

	남성		여성	
계약연령	월 보험료	누계보험료	월보험료	누계 보험료
50세	14,622	약 526.3만	14,904	약 536.5만
55세	17,784	약 533.5만	18,132	약 543.9만
60세	22,572	약 541.7만	22,998	약 551.9만
65세	30,630	약 551.3만	31,128	약 560.3만
70세	46,848	약 562.1만	47,364	약 568.3만

니혼생명 Gran Age(장수생명보험) 계약상황

단위: 백만 엔

	신계약		보유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3월말	39,819	218,900	38,985	214,036
2018년 3월말	14,355	74,112	51,591	278,162
2022년 3월말	16,014	88,625	92,079	496,953
2023년 3월말	6,235	35,945	94,833	512,166

톤틴연금의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 공적연금의 존재: 공적연금으로 장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 된다고 생각, 공적연금의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개월당 0.7%의 연금액이 증가. 5년에 42%, 10년에 84% 증가.
- 개호 및 의료에 대한 고령자의 본인 부담 증가 추세.
- 손실 회피성:빨리 사망할 겨우 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심리적인 문제: 톤틴연금을 장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
- 프레이밍효과: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 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져 톤틴연금의 마이너스 측면이 강하게 의식되기 때문.

메이지야스다생명 양로보험 재출시

- 2000년대 초반까지 주력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운용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대 들어 출시를 중단.
- 2025년에 13년 만에 일시불 양로보험 재출시
- 일시불 양로보험은 보험의 기능과 저축성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추가해 만기환급금으로 반환
- 보험기간 7년, 10년, 15년 등 3종으로 예정이율은 최고 2.3%

메이지야스다생명 양로보험 재출시

- 2014년 1월부터는 계약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제2연락처로 연락해 계약자의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는 **마이 안심 패밀리등록제도를 실시**.
- 2018년 4월부터 가령으로 인한 시력 및 청력 저하, 장기요양 및 후유증으로 인해 **생명보험의 각종 수속이 어려운 계약자를 대상으로 마이 어시스트 플러스 제도를 새롭게 창설**.
- 영업직원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전임 담당자가 계약자를 서포트하는 어시스트 데스크 등을 설치.
- 점자나 QR코드를 이용한 어시스트 카드도 발행.

- 일본정부 2014년 1월부터 개인의 예금을 주식투자에 전환하게 해 일본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 NISA를 실시.
- NISA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이 비과세.
-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저축계좌)를 모델로 한 일본판 ISA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애칭이 붙음.

-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실시 이후 NISA 계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액이 증가 .
- 2024년 1월부터는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시행하면서 NISA의 투자한도를 최대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확대.
- 비과세 한도가 세 배(비과세 보유 한도액 1,800만 엔)로 늘어나고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일반NISA와 적립NISA를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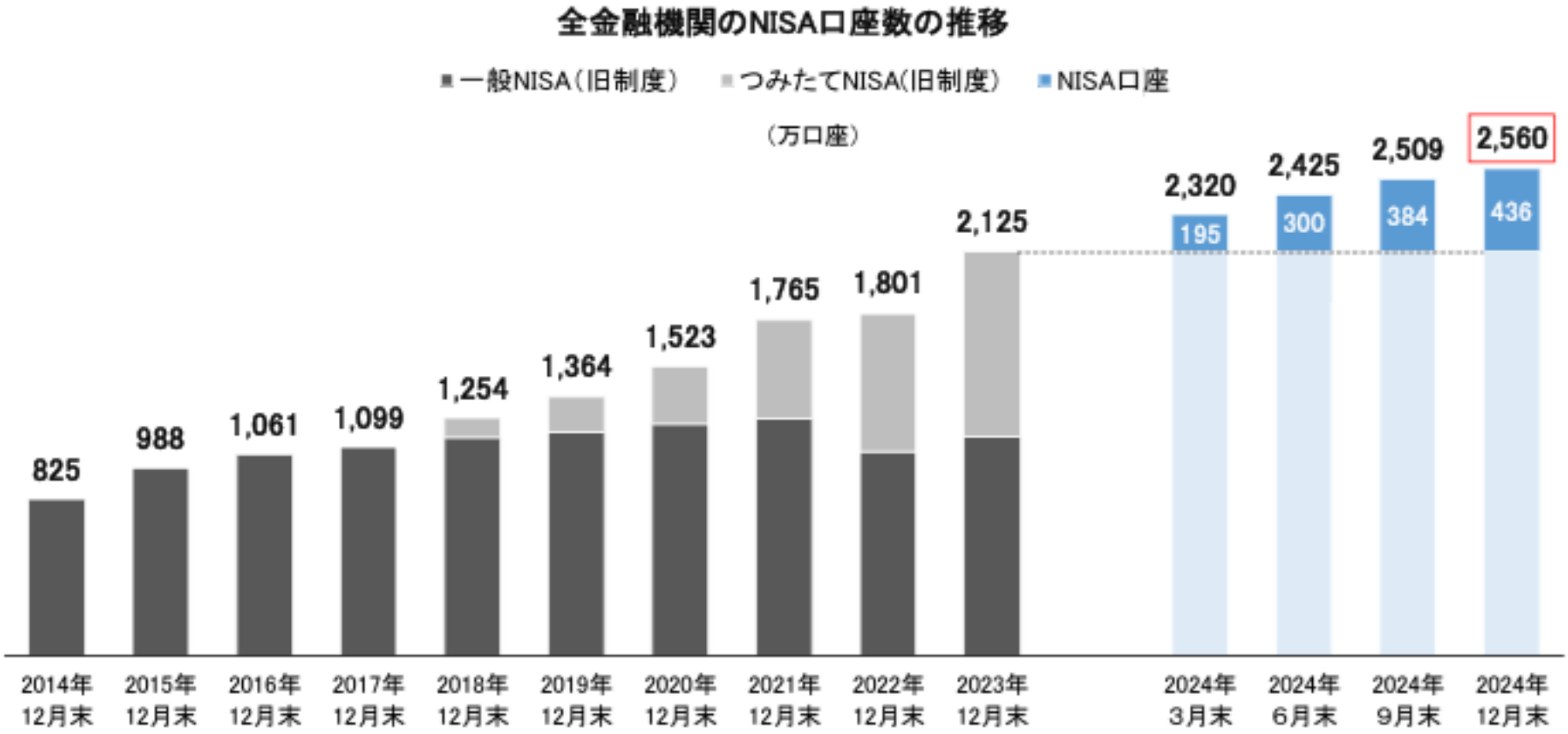
(구)NISA와 (신)NISA의 비교

	(구)NISA		(신)NISA	
구분	적립형	일반형	적립형	성장형
선택여부	적립형과 일반형 중 하나 선택		적립형과 성장형 혼용 가능	
가입대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가입가능기간	2023년까지		2024년부터	
비과세기간	20년	5년	무기한	
연간납입한도	40만엔	120만엔	120만엔	240만엔
			총 360만엔	
총투자한도	800만엔	600만엔	1,800만엔	1,200만엔
			총 1,800만엔	
투자대상	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ETF, 리츠, 공모주식 투자신탁 등	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ETF, 리츠, 공모주식 투자신탁 등

출처) 자본시장연구원(2024)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국내 시사점

금융기관의 NISA계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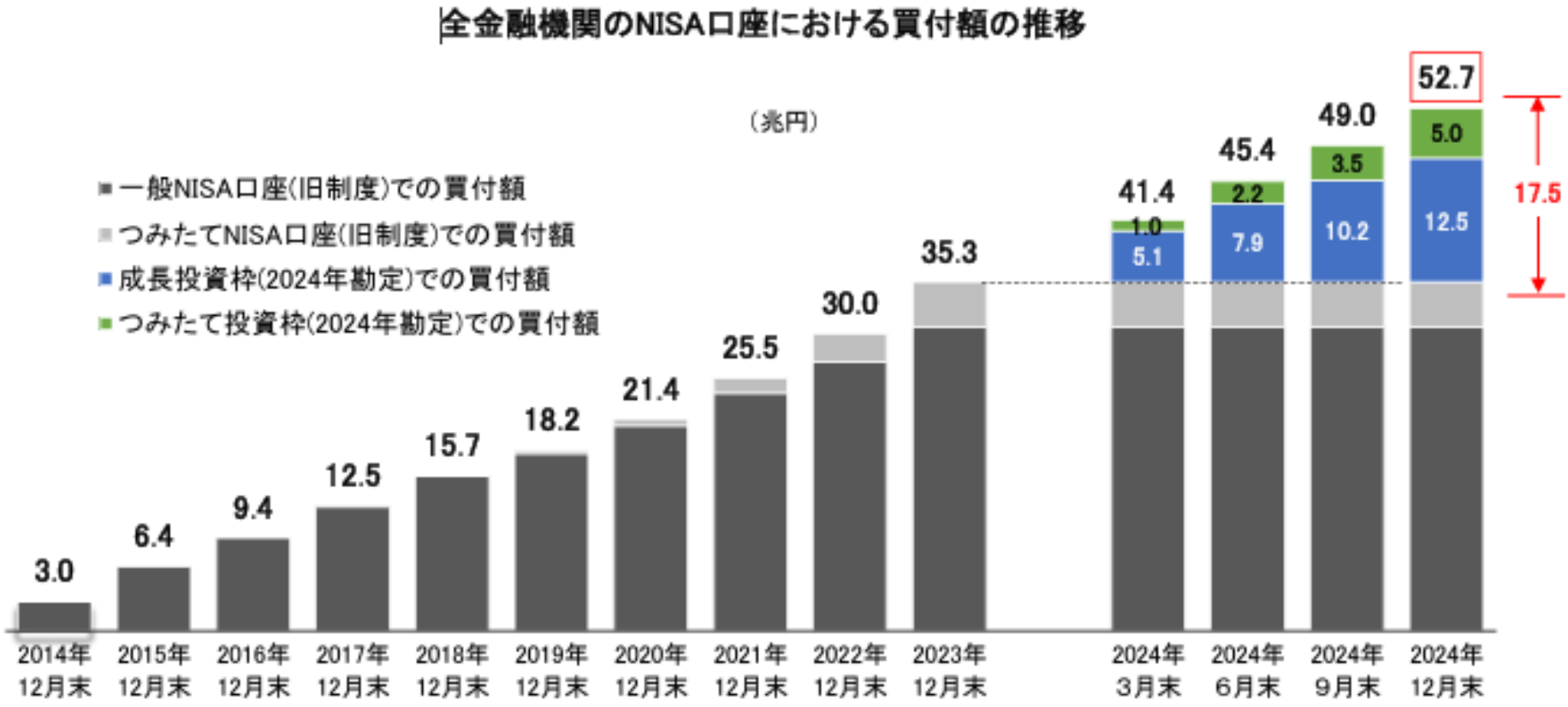
2024년 12월말 현재 약 2,560만 계좌,1년 전에 비해 약 436만 계좌가 증가



日本証券業協会「NISA口座の開設・利用状況（2024年12月末時点）　【速報版】」
2025년2월

NISA계좌 구입액 추이

NISA계좌 구입액은 2024년말 52.7조 엔,2024년에만 17.5조 엔 증가



日本証券業協会「NISA口座の開設・利用状況（2024年12月末時点）　【速報版】」2025년2월

일본에서의 연령별 NISA 계좌 수의 변화

	2014年12月末		2024年9月末		2014年12月末比
	口座数	年代別比率	口座数	年代別比率	
総数	8,253,799	100.0%	25,086,221	100.0%	303.9%
10歳代			128,936	0.5%	
20歳代	316,327	3.8%	2,878,530	11.5%	910.0%
30歳代	725,288	8.8%	4,391,484	17.5%	605.5%
40歳代	1,131,654	13.7%	4,826,897	19.2%	426.5%
50歳代	1,400,573	17.0%	4,810,864	19.2%	343.5%
60歳代	2,256,817	27.3%	3,691,248	14.7%	163.6%
70歳代	1,765,504	21.4%	2,858,589	11.4%	161.9%
80歳代以上	657,636	8.0%	1,499,673	6.0%	228.0%

（注）1　これまでに開設された総口座数から金融機関変更に伴う変更前口座・廃止口座の数を差し引いて計上。

2　年代別比率については、端数処理（四捨五入）の関係で、合計が100%にならない場合がある。

건강관리나 요양 등의 비보험 사업을 강화

- 사망 보장 중심의 보험사업 전략을 전환해 비보험 사업을 강화.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2023년 말부터 비보험산업 기업과 인수 및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23년 7월 메이지야스다생명 :의료지원서비스 관련 엠네스와 제휴
- 2024년 5월 제일생명:복리후생사업 관련 베네핏원 인수

건강관리나 요양 등의 비보험 사업을 강화

- 2023년 11월 일본생명:의료, 요양, 보육 등 종합생활지원 기업인 니치이홀딩스(요양분야 매출규모 일본 1위)를 인수.시니어 사업 등 보험 이외 비즈니스를 강화.
- 2024년 11월, 보육사업 관련 기업인 ‘라이크’에 약 8억 엔을 출자하여 보육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발.

4. 일본의 과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치매 고령자 증가와 관련된 과제

- 일본의 치매 고령자 증가와 관련된 과제는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 돌봄 제공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치매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정비

⇒ 행방불명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

2025년 문제, 2035년 문제,2040년 문제

- 2025년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가 되는 75세를 맞이해 인구의 30%가 고령자가 됨에 따라 의료 및 요양 비용의 증가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는 현상.
- 2035년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 가 85세 이상이 되는 등 고령화율이 더욱 상승해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가 되는 현상.
- 2040년 문제는 2040년 전후에는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단카이 주니어 세대(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2054년 문제」

- 「2054년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동시에 75세 이상 인구가 2054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문제.
- 2054년에는 일본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인, 역사상 전례 없는 '초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자'라는 용어에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를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75세 이상이나 80세 이상을 고령자로 재정의할 가능성도 높음.

VUCA시대

Volatility(불안정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이 증가한 VUCA시대에 이미 돌입

VUCA시대

-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

불안정성 Volataloty	불확실성 Uncertaini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변화의 질과 양이 큼 예 :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사회가 크게 변화	미래를 확신하기가 어려움 예 : 대기업이라도 도산하는 사례가 빈발	상호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 예 :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 어려움	경계선이 불분명 예 : Ube는 택시업계 ? Airbnb는 호텔업계 ?

빅데이터의 활용

- 의료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JMDC(일본의료데이터센터)는 의료비 영수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자 데이터베이스와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해석하여 관공청 및 제약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치매를 포함한 새로운 의약 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JMDC는 주로 대기업의 건강보험조합으로부터 1159만 명분의 의료비 영수증과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익명 등으로 가공하고 통원과 처방약, 건강진단 상황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JMDC가 제공하고 있는 주된 서비스

- 건강보험조합과 지방자체단체의 보건사업을 지원:종이 및 전자 의료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 데이터, 건강진단 데이터, 장부 데이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에 보건사업의 PDCA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포트하고 데이터 헬스계획을 추진.
- 보건사업의 PDCA사이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웹을 기반으로 한 지원 도구를 제공.
- JMDC의 독자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예측 모델을 제공: JMDC에서 사용하는 통계모델은 160만 명분의 건강진단 및 의료비 영수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한 모델로 건강진단 및 정밀건강검진의 결과 통지, 생명보험의 보험료율 계산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치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치매 고령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서포터 등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포괄센터의 구축.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치매 카페 등 지역주민이 가볍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설치.
- 보험회사 등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치매 관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해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은 가족신탁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증가, 한국도 치매머니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신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해당 가족과 재산에 적합한 맞춤형 신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족신탁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
- 일본에서는 가족신탁보급협회가 2013년에 설립되어 가족신탁에 대한 홍보, 상담, 가족신탁 전문사 연수,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와 신탁 상담 고객의 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가족신탁을 운영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설립

幸齢者 가 증가하는 사회를 구축

- 고령자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고용의 연장 및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뇌의 활성화는 치매를 예방
- 보다 행복하게 나이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高齢者 가 아니라 → 幸齢者 가 증가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韓国における社会政策のあり方

――雇用・社会保障の現状とこれからの課題

金　明中・著

韓国における社会政策のあり方II

――韓国における少子化、格差、葛藤の現状

金　明中・著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중(金明中)
jusarang3502

